|  |
| --- |
|  |
| <음절분해>  음절의 중심은 항상 [모음](http://home.pufs.ac.kr/~espanol/letrear.html#모음)이다. 따라서, 음절 분해는 항상 모음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모음+[자음](http://home.pufs.ac.kr/~espanol/letrear.html#자음)+모음+의 구조에서 중간의 자음은 뒤의 모음과 한 음절을 이룬다. 따라서, casa(‘집’)은 ca-sa라고 음절분해되며, mucho(‘많은, 많이’)는 mu-cho로, hablar(‘말하다’)는 ha-blar로, clima(‘기후’)는 cli-ma로 음절분해 되는 것이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둘인 경우에는 앞의 자음은 앞모음에, 뒤의 자음은 뒷모음에 붙여서 음절을 분해한다. 따라서, universidad(‘대학’)은 u-ni-ver-si-dad처럼 음절이 분해되며, gigante(‘거인’)은 gi-gan-te로 음절 분해되는 것이다.  강모음과 강모음은 두 음절을 이루므로 음절 분해를 할 때 유념해야 한다. leer(‘읽다’)의 경우 le-er로 분석되는 이유는 e가 강모음이므로 두 음절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chimenea(‘굴뚝’)의 경우에도 chi-me-ne-a처럼 e와 a가 서로 다른 두 음절을 이룬다. |
|  |
| <강세의 위치>  스페인어의 강세의 위치는 매우 규칙적이다. n, s를 제외한 모든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마지막 음절에 강세를 받는다. 예를 들어, hablar(‘말하다’)는 ha-blar라고 음절이 분해되며 강세는 마지막 음절인 blar에 가게 된다. universidad(‘대학’)의 경우에는 u-ni-ver-si-dad이라고 음절 분해되며 강세가 마지막 음절인 dad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n, s나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일 경우에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위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 casa(‘집’)는 음절분해가 ca-sa로 되므로 강세는 끝에서 두번째 음절인 ca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mucho(‘많은, 많이’)는 mu-cho라고 분석되고 mu에 강세를 받으며, gato(‘고양이’)는 ga-to라고 분석되고 ga에 강세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chimenea(‘굴뚝’)과 같은 경우 그 음절분해가 chi-me-ne-a로 강모음인 e와 a가 서로 독립적인 음절을 이루므로 끝에서 두번째 음절은 ne가 되서 강세가 이 음절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강모음과 약모음이 결합된 이중모음의 구조를 가졌다할지라도 약모음이 강세를 받아 강모음화 되었을 경우에는 음절을 독립시켜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tío(‘삼촌’)는 tí-o라고 분석되며, oído(‘청각’)은 o-í-do라고 분석된다.  위의 규칙에 어긋나거나 끝에서 삼음절 이상에 강세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강세부호 표기를 하여야 한다. 위의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로는 ca-fé(‘커피’), co-ra-zón(‘마음’), ár-bol(‘나무’), ru-bí(‘루비’) 등이 있고 끝에서 삼음절 이상에 강세가 있는 경우로는 nú-me-ro(‘숫자’), te-lé-fo-no(‘전화’), pe-rió-di-co(‘신문’) 등이 있다.   |  |  |  |  | | --- | --- | --- | --- | | 강세의 위치 | n, s이외의 자음로 끝난 경우-마지막 음절 | 모음이나, n, s로 끝난 경우-끝에서 두번째 음절 | 규칙에 어긋나거나 끝에서 세번째 음절인 경우 강세 부호 표시 | | 예 | ha-blar, u-ni-ver-si-dad... | ca-sa, mu-cho... | ca-fé, nú-me-ro... |   강세 부호가 강세 음절을 표시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강세부호를 가진 단어와 그렇지 못한 단어 간의 뜻을 구분하기 위하여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철자법상에 오류를 낳을 수 있으므로 글을 쓸 때 유의하여야 한다. Quiero té.('나는 차를 마시고 싶다')와 Te quiero.('너를 좋아해')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té는 ‘마시는 차’를 의미하고 te는 ‘너를’이라는 2인칭 단수 목적격을 의미한다.    <보충>  강세로 부호의 유무로 문법의 범주가 달라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tú (‘너’)와 tu(‘너의’) mi(‘나의’)와 mí(전치사의 목적격 ‘나를’) éste(지시대명사 ‘이것, 이분’)와 este (지시형용사 ‘이’) sí(‘예’)와 si(‘만약 ~한다면’) sé(saber동사의 1인칭 단수 ‘알다’)와 se(‘재귀대명사’, ‘수동대명사’, ‘무인칭대명사’, ‘간접목적격’) dé(dar동사의 접속법 1인칭 단수‘주다’)와 de(‘-의’) qué(의문대명사 및 형용사 ’무엇, 무슨’) 와 que(관계대명사 및 형용사 혹은 접속사) quién(의문대명사 및 형용사 ’누구, 누구의’)와 quien(관계대명사) dó nde(의문부사 ‘어디’)와 donde (관계부사) cómo(의문부사 ’어떻게’)와 como(관계부사) cuándo(의문부사’언제)와 cuando(관계부사) por qué(의문부사 ‘왜’)와 porque(접속사 ‘왜냐하면’)... |

<명사의 성>

문법에서 다루는 성이라는 것은 자연의 성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연의 성을 가진 개체를 지시하는 명사일 경우 자연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사의 남성형을 기준으로 그 남성형이 -o로 끝날 경우에 여성형은 -o를 -a로 고친 형태이다. 남성형이 그 밖의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자음 뒤에  -a를 붙여서 여성형을 만든다.

|  |  |  |
| --- | --- | --- |
| **여성형만들기** | **(남)-o → (여)-a** | **(남)-자음 →(여)-자음 + a** |
| **예** | gato ('숫코양이') → gata('암코양이') | profesor('남선생님') → profesora ('여선생님') |
| portero('남자수위') → potera('여자수위') | español('스페인 남자') → española ('스페인 여자') |

이 밖에도 자연의 성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남성형과 여성형이 완전히 이형태인 명사로 존재하는 경우로는 padre (‘아버지’)와 madre(‘어머니’ )가 있고, 남성형에 어미를 변화시켜 만드는 경우로는 actor(‘남자배우’)와 actriz(‘여자배우’) 가 있다.

자연의 성이 존재하지 않는 명사의 경우에는, 그 해당 명사의 마지막 철자에 의해 문법 성이 결정된다.

|  |  |  |
| --- | --- | --- |
| **문법의 성** | **(남) -o 나 기타 자음으로 끝난 경우** | **(여) -a, -d, -z, -ie, -umbre, -ción 등의 철자로 끝난 경우** |
| **예** | libro('책') / reloj ('시계') | pintura ('그림') / superficie ('표면') / verdad ('진실') / cruz ('십자가') |

그러나, 이러한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a로 끝나지만 남성인 명사로 el día (‘날’, ‘낮’), el mapa(‘지도’), el idioma (‘언어’), el clima (‘기후’) 등이 있으며, -o나 그밖의 철자로 끝나 남성형으로 보이지만 여성형인 명사로 la mano(’손’), la foto(‘사진’), la clase(‘교실’, ‘강의’), la llave(‘열쇠’) 등이 있다.

<명사의 수>

명사의 수는 단수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수형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s를 덧붙여서 만들고,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es를 덧붙여서 만든다. 그러나, 마지막 자음이 -z인 경우에는 이를 -c로 바꾼 뒤 -es를 덧붙인다.

|  |  |  |  |
| --- | --- | --- | --- |
| **복수형만들기** | **-모음 → -모음+s** | **-자음(z제외) → -자음+es** | **-z → -ces** |
| **예** | libro ('책') → libros | papel('종이') → papeles | lápiz('연필') → lápices |

그러나, 강세가 표시된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á와 -é의 경우에는 -s를 그밖의 모음일 경우에는 -es를 첨가한다. 따라서, café(‘커피’)는 cafés, papá(‘아빠’)는 papás, mamá(‘엄마’)는 mamás로 변하나, bambú(‘대나무’)의 경우에는 bambúes로 바뀐다.

단수가 -s의 형이라 복수형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선행하는 관사로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는데, el paraguas(‘우산’)과 los paraguas(’우산들’), 또는 el lunes(‘월요일’)과 los lunes(‘월요일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반드시 복수형으로만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는 개념적으로 그 지시물 자체가 복수형으로 인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las gafas(‘안경’), los pantalones(‘바지’), las tijeras(‘가위’) 등이 있다.

단수를 복수로 바꿀 대 주의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명사에 따라서 강세 부호가 첨삭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강세부호가 생략되어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단수형의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표시되어 있던 경우로 복수형으로 변화시키면 음절이 늘어나 기존의 위치에 자연스럽게 강세가 떨어지게 되므로 부호를 지워주어야 하는 경우이다. 그 예로, estación(‘역’, ‘계절’)이 복수형이 되면 estaciones로 표기가 된다. 복수가 되면서 강세부호가 첨가되는 경우는 단수형이 끝에서 두번쩨 음절에 강세를 받는 경우로 복수가 되면서 음절 수가 증가해 끝에서 세번째 위치로 바뀌게 되므로 강세부호를 첨가해 주어야 한다. examen(‘시험’)이 exámenes로 바뀌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밖에 예외적으로 단수와 복수의 강세의 위치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는데 régimen(‘제도’, ‘식이요법’)과 regímenes 및 carácter(‘성격’, ‘문자’)와 caracteres가 이에 해당한다.

**<형용사의 성/수 변화>**

형용사의 어미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o로 끝나는 것이고 이 경우 수식을 받는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 -o, -os, -a, -as로 변화한다. -o이외의 문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남성형과 여성형에 차이가 없으며 단수형과 복수형만 차이가 난다.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은 명사와 동일하여 모음으로 끜난 경우에는 -s를,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es를 덧붙여서 만든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적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자음으로 끝났을지라도 -a, -as를 붙여 여성형으로 변화시킨다.

|  |  |  |
| --- | --- | --- |
| **형용사의 성/수 변화** | | **예** |
| **-o로 끝난 형용사** | **성/수 변화** | nuevo, -os, -a, -as; barato; bonito; guapo |
| **-자음으로 끝난 형용사** | **수변화(-es)** | facil, -es; dificil |
| **-e로 끝난 형용사** | **수변화(-s)** | interesante, -s; elegante; inteligente... |
| **국적형용사** | **성/수 변화** | espanol, -es, -a, -as; ingles; frances |
| **수변화(-s)** | canadiense, -s; estadounidense; costarricense |

형용사의 비교급은 동등비교, 우등비교, 열등비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등비교의 경우의 그 형식이 “A tan + 형 + como B”로 ‘A는 B만큼 -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 예로 Juan es tan alto como tú라고 하면 ‘후안은 너만큼 그렇게 키가 크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 구문과 비교하여 Juan tiene tantos libros como tú.라는 구문은 명사를 비교한 구문으로 그 의미가 ‘후안은 너만큼 그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이다.

형용사의 우등비교는 그 형식이 “A más + 형 + que B”로 ‘A는 B보다 더 -하다’라는 의미이다. Juan es más alto que tú.라고 하면 ‘후안은 너보다 더 크가 크다’라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열등 비교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A menos + 형 + que B”로 ‘A는 B보다 덜 -하다’이며, Juan es menos alto que tú.라고 하면 ‘후안이 너보다 키가 덜 크다’라는 의미이다.

비교급의 형태가 다른 형용사로 más나 menos없이 한 단어로 비교급을 이루는 형용사들이 있다. mucho(‘많은’)은 비교급이 más(‘더 많은’)이고, poco(‘적은’)는 menos(‘더 적은’), bueno(‘좋은’)은 mejor(‘더 좋은’), malo(‘나쁜’)은 peor(‘더 나쁜’)이 그 비교급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용사를 사용하여 비교급을 만들 경우에는 각각 서로 다른 비교급의 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Esta pluma es mejor que aquella.는 ‘이 펜이 저 펜보다 더 좋다’라는 의미가 된다.

|  |  |
| --- | --- |
| **<확장>** | 또한, 형용사에 따라서는 두 가지 형태의 비교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grande(‘위대한’, ‘큰’)의 경우에는 más grande는 ‘더 큰’의 의미가 되며, mayor의 경우에는 ‘더 중요한’ 혹은 ‘더 나이가 많은’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México es más grande que España.라고 할 경우에는 ‘멕시코가 스페인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이지만 Él es mayor que yo.라고 할 경우에는 ‘그가 나보다 더 연장자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pequeño(‘작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교급의 형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로 más pequeño는 ‘더 작은’의 의미이며, menor는 ‘덜 중요한’ 혹은 ‘더 나이가 적은’의 의미이다. |
|  |
|  | A와 B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숫적으로) -보다 더 적게’ 또는 ‘(숫적으로)-보다 더 많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때에는 수사 앞에 que를 쓰지 않고 de를 써서 ‘-보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따라서, ‘나는 백 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Tengo más de cien libros.라고 하고, ’20명 이하의 학생들이 있다’라는 표현은 Hay menos de veinte alumnos.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책이 백 권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No tengo más que cien libros.라고 하고 ‘이 강좌에는 수강생이 20명밖에 안된다’라는 표현은 No hay más que veinte estudiantes en este curso.라고 que를 넣어서 표현하는데 이는 “no...más que”가 ‘오직’ 또는 ‘단지’라는 의미로 숙어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형용사의 최상급**

최상급은 “el[la/los/las] + más[menos] + 형 + de[entre]”처럼 정관사를 선행시켜서 ‘-중에 가장 -하다’라는 의미를 띠게 한다. Juan es el más alto de la clase.는 ‘후안이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라는 의미이며, Juan es el menos inteligente de la clase.는 ‘후안이 반에서 가장 키가 작다’라는 의미이다.

다른 형태의 비교급을 가진 형용사들의 경우에는 그 최상급의 경우에도 역시 이 이형태를 쓴다. 따라서, ‘후안이 가족 중에 가장 연장자다’라는 표현은 Juan es el mayor de la familia.라고 하고, ‘그녀가 반에서 가장 못하는 학생이다’라는 표현은 Ella es la peor de la clase.라고 한다.

**절대최상급: -**í**simo(-a)**

-ísimo를 붙인 절대 최상급은 ‘가장-하다’ 또는 ‘너무나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형용사의 마지막 모음을 빼고 alto('키 큰')-altísimo로 바꾸는데 grand('큰, 위대한')은 grandísimo로, hermoso('아름다운')은 hermosísimo로, prudente('신중한')은 prudentísimo로 바뀐다. -ble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bilísimo로 바뀌는데 amable('친절한')는 amabilísimo로, agradable('상냥한, 쾌적한')는 agradabilísimo로 바뀐다. 발음상의 이유로 철자가 바뀌는 경우로는 blanco('흰')가 blanquísimo로, largo('긴')이 larguísimo로, rico('부유한')이 riquísimo로 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밖에 이중모음이 단모음화되는 경우로 fuerte('강한')-fortísimo, tierno('여린')-ternísimo가 있고 -errimo가 붙는 경우로 celebre('뛰어난')- celeberrimo, pobre('가난한')- pauperrimo가 있다.

**<부사형 만들기>**

부사는 대부분 형용사에 -mente를 붙여 만드는 파생어이다. 이때의 규칙은 -o로 끝나는 형용사일 경우에는 -o를 -a로 고치고 -mente를 붙이면 된다. 그밖의 철자로 끝났을 경우에는 그냥 -mente를 붙여주면 된다. 만약, 두개 이상의 부사를 나란히 쓰려고 하면, 이 경우 앞에 나오는 부사형에는 -mente를 붙이지 않고 맨 끝의 부사에만 -mente를 붙인다.

|  |  |
| --- | --- |
| **부사 만들기** | **예** |
| **-o로 끝나는 형용사** | exacto → exactamente; politicamente, economicamente, comodamente... |
| **-o로 끝나지 않는 형용사** | (예) social → socialmente; alegremente, felizmente, facilmente... |
| **2개 이상이 연속될 때** | (예) politica y economicamente; feliz y alegremente... |

이밖에도 부사적으로 쓰이는 형태로는 “전치사+추상명사”의 형태가 있는데, 이는 -mente형과 같은 의미를 같는다. 예를 들어, fácilmente(‘쉽게’)는 con facilidad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perfectamente(‘완전히’)는 con perfección로, generalmente(‘일반적으로’)는 en general로, particularmente는 en particular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부사의 비교급**

부사의 비교급의 형태는 “A tan + 부사 + como B”이고 그 의미는 ‘A는 B만큼 -하다’이다. 예를 들어, Mi hermano corre tan rápido como el campeón nacional.이라고 하면, ‘우리 오빠는 국가 대표 선수만큼이나 그렇게 빨리 달린다’라는 의미가 된다.

우등비교의 형태는 “A más + 부사 + que B”이고 그 의미는 ‘A는 B보다 더 -하다’이다. Mi casa está más cerca que la tuya.는 ‘우리집이 너희집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라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열등비교의 형태는 “A menos + 부사 + que B”이고 ‘A는 B보다 더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El carro corre menos rápidamente que el avión.은 ‘자동차는 비행기보다 덜 빨리 달린다’라는 의미이다.

más나 menos 없이 한 단어로 비교급을 이루는 부사들이 있는데, mucho(‘많이’)의 비교급은 más(‘더 많이’)가 되고, poco(‘적게’)는 menos(‘더 적게’), bien(‘잘’)는 mejor(‘더 잘’), malo(‘나쁘게’)는 peor(‘더 나쁘게’)가 된다. 예를 들어, ‘그가 너보다 스페인어를 더 잘 말한다’는 Él habla español mejor que tú.라고 표현되며, ‘전보다 더 시력이 나빠졌어’는 Veo peor que antes.라고 표현된다.

**부사의 최상급**

부사는 정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품사이므로 최상급을 만들고자 할 경우 형용사의 최상급 구문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없다. 예를 들어, Aquí el tren corre más rápido.라고 할 경우 ‘여기서 기차가 더 빨리 달린다’라는 의미를 띠지만 최상의 뜻은 없다. 따라서, 부사 자체를 최상급으로 나타낸다기 보다는 우회적으로 문자 자체의 의미가 최상급을 표현할 수 있도록 관계 대명사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arlos es el que come más aprisa entre nosotros.라는 표현은 ‘까를로스가 우리들 중에 가장 성급하게 식사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이다. 또 다른 예로, De toda la clase, Juan es el que trabaja menos asiduamente.는 ‘반에서 후안이 가장 덜 열심히 공부하는 애다’라는 의미가 된다.

**전치사 "A"**

전치사 a는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로’라는 의미로 쓰인다. María va a la escuela.(‘마리아는 학교에 간다.’)라는 예에서 ‘학교에’라는 방향을 전치사 a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원형부정사 앞에서는 어떤 동작으로 옮겨감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동사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용법은 오히려 선행하는 개별동사의 특성에 준한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예를 들어, Él se decide a viajar.(‘그는 여행갈 결심을 했다.’)에서는 “decidirse a 원형동사”의 형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관용적인 형식으로 이해된다.

직접목적어가 사람, 동물 혹은 의인화한 추상명사인 경우에 전치사 a를 선행시킨다. 예를 들어, Él llama a sus amigos.(‘그는 친구들을 부른다’)에서는 목적격이 sus amigos(‘그의 친구들’)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므로 전치사 a를 사용한 것이다. Amo a mi patria.(‘나는 내 조국을 사랑한다’)라는 예에서는 mi patria(‘내 조국’)를 의인화시켜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치사 a를 사용한 것이다. 이 경우 전치사를 생략하고 Amo mi patria.표현해도 된다.

간접목적어 앞에는 직접목적격과 구분을 하기 위하여 사람이거나 사물일 경우에 관계없이 반드시 전치사 a를 사용한다. Los alumnos entregan la tarea a la profesora.(‘학생들이 숙제를 선생님께 제출한다.’)라는 예에서 간접 목적격이 사람인 la profesora이지만 Pongo la cortina a la ventana.(‘나는 창문에 커튼을 단다.’)라는 표현에서는 la ventana가 사물이지만 간접목적격이므로 전치사 a를 선행시킨 것이다.

그런데, 직접목적격과 간접목적격이 함께 쓰인 경우 전자가 사람일지라도 전치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간접목적격 앞에만 전치사 a를 쓴다. 이러한 예로 Presento Pedro a María.(‘나는 마리아에게 뻬드로를 소개시켜 준다.’)를 들 수 있다.

이 전치사가 정관사의 남성 단수형인 el과 함께 쓰이면 al이라고 축약이 된다. 그래서 María va al banco.(‘마리아는 은행에 간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전치사 a와 정관사 el의 축약형인 al이 원형부정사와 함께 쓰이면 그 의미가 ‘-할 때’가 되며 접속사cuando가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로 대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l empezar la clase, gritó un alumno.(‘수업이 시작될 때, 한 학생이 소리를 쳤다.’)는 Cuando empezó la clase, gritó un alumno.와 같은 의미이다.

**전치사 "EN"**

전치사 en은 장소 앞에 쓰여서 ‘-에’라는 의미가 된다. La revista está en la mesa.는 ‘잡지는 탁자에 있다’라는 의미이고 Mi mamá entra en el cuarto.는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 가신다’의 의미이다.

**전치사 "DE"**

전치사 de는 어느 장소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로부터’의 의미로 쓰인다. Salí de la escuela.는 ‘나는 학교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태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할 경우에도 전치사 de를 쓴다. Él está libre del servicio militar.라는 예는 ‘그는 군복무로부터 면제되었다’라는 의미이다.

ser 와 어울어 사람일 경우에는 출신지를, 사물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현한다. Pepe es de Colombia.는 ‘뻬뻬는 콜롬비아 출신이다’라는 의미이고 Este café es de Colombia.는 ‘이 커피가 콜롬비아산이다’라는 표현이다.

소속, 소유를 나타낼 때 쓰이는 de의 예로는 El coche del jefe(‘사장님의 차’)를 들 수 있고, 재료 또는 내용물을 나타내는 경우로는 Esta mesa es de madera.(‘이 탁자는 나무로 되어 있다.’)와 Necesito un vaso de agua.(‘물 한잔이 필요해.’)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숙어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de día(‘낮에’), de noche(‘밤에’), de manaña(‘아침에’) 표현들에 쓰인다.

**전치사 "CON"**

전치사 con이 ‘-와 함께’라는 의미로 쓰인 예는 Él vino con mi hermano.(‘그가 내 형이랑 왔다’)를 살펴볼 수 있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을 가지고’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는 Ella se defendió con la pistola. (‘그녀는 권총으로 자기방어를 하였다.’)이다.

**전치사 "POR"**

전치사 por는 장소 앞에 쓰이면 ‘어떤 장소를 통과하여’ 혹은 ‘어느 장소 근처에’라는 의미가 되며 이러한 예로는 Él iba paseando por el jardín.(‘그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가 있다. 대략의 시간이나 일정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쓰이면 ‘-동안에’의 의미를 띤다. Él va a quedarse aquí por tres meses.는 ‘그는 3개월동안 여기에 머물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수동태의 행위자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에 의해서’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 그 예로는 Fueron detenidos por la policía.(‘그들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를 들 수 있다. Por가 수단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는 우편물 발송과 관계되는 표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Por correo(‘우편으로’), por barco(‘선편으로’), por aereo(‘항공편으로’), por certificado(‘등기로’) 등의 표현이 쓰인다. Le remitimos una carta por correo.라고 할 경우 ‘그에게 우편으로 서신을 보낸다’라는 의미가 된다.

전치사 por가 목적 또는 이유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Él lo hace por su familia.라는 예는 ‘그는 그것을 가족 때문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한다’라는 의미이다. 전치사 para와의 차이는 para를 쓸 경우에는 단순히 목적만을 나타내고 행위를 유발하는 이유나 동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을 가지러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움직임의 동기와 목적이 ‘물’이기 때문에 전치사 por를 사용해서 Van por agua.라고 표현을 하여야 한다.

전치사 por는 ‘-대신에’ 혹은 ‘-의 댓가로’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Mi hijo firma por mí.라고 하면 ‘내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서명을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Te vendo este libro por treinta pesos.라고 하면 ’30뻬소에 이 책을 너에게 판다’라는 의미가 된다.

관용적으로 “tomar a alguien por algo”라는 형식을 사용하면 ‘-를 -라고 간주한다’ 혹은 ‘-를 -라고 오해한다’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Mis padres tomaron a mi amiga por china.라고 하면 ‘나의 부모님들은 내 여자친구를 중국 여자애라고 생각하셨다’의 의미가 된다.

“estar por+원형부정사”이라는 형식은 ‘ -할 예정이다’라는 의미로 원형부정사가 지칭하는 행위가 앞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일임을 표현할 때 쓴다. La nueva guia telefónica está por salir.는 ‘새로온 전화 교환수는 외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다.

**전치사 "PARA"**

전치사 para는 ‘-을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전치사로 영어의 for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Para la salud hay que hacer deportes.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치사가 원형부정사 앞에 쓰여도 역시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로 이해된다. 그래서, Estudiamos mucho para aprobar el examen.라고 표현하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로’라고 목적지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para를 사용한다. 전치사 a가 구체적인 목적지로 향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반면, 전치사 para는 여행의 목적지 등이 될 수 있는 국가, 도시 등의 좀더 광범위한 목적지를 표현할 때 쓴다. Salimos para Madrid mañana.라는 표현은 ‘내일 마드리드로 출발한다’라는 의미이고, El tren sale para Seúl.은 ‘기차는 서울로 출발한다.’라는 의미이다. 앞으로 예정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까지 -한 동작이 완료되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Para el próximo martes estará arreglado el coche.라고 하면 ‘내주 화요일까지 차가 수리되어 있을 것이다’의 의미가 된다.

“estar para + 원형부정사”의 형식으로 쓰이면 그 의미가 ‘막 -하려고 하다’가 된다. Él está para irse.라는 예는 ‘그는 막 떠나려고 하는 참이다.’라는 의미이다.

**정관사**

관사는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표시로 정관사의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가 공히 아는 사물을 지칭할 때 쓴다. 이 경우에는 명사가 가산명사이거나 불가산명사이거나 관계가 없다.

|  |  |  |  |
| --- | --- | --- | --- |
| **관사와 명사** | | **정관사** | |
| **남성** | **여성** |
| **가산명사** | **단수** | el (libro) | la (casa) |
| **복수** | los (libros) | las (libros) |
| **불가산명사** | | el (dinero) | la (leche) |

관사의 또 다른 기능 중의 하나는 명사의 성과 수에 대한 표시이다. 자연의 성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남성형과 여성형이 형태적으로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명사에 선행하는 관사를 이용해서 그 해당 성을 표시한다. 정관사를 이용해 성을 표시한 예로, el estudiante (‘남학생’)과 la estudiante(‘여학생’) 및 el turista (‘남자관광객’)와 la turista (‘여자관광객’)를 들 수 있다. 또한, 같은 단어라할지라도 문법의 성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el orden(‘질서’)와 la orden(‘명령’) 및 el capital (‘자본’)과 la capital(‘수도’)가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el arma(‘무기’) las armas, un arma, unas armas 처럼 단수형의 관사의 성의 표기가 명사의 성과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음성학적인 원인에 기인한 경우로 강세를 받는 a나 ha로 시작하는 단어는 여성단수이지만 발음상의 이유로 관사의 남성단수형을 취한다. 동일한 예로, el ala(‘날개’) las alas, un ala, unas alas를 들 수 있다.

정관사의 구체적인 쓰임은 아래와 같다.

(1) 종의 대표로서 그 특징에 대해 다룰 경우에 쓴다. 예를 들어, El oro es util. (‘금은 유용한 것이다.’)에서  el oro는 '금'을 대표하는 것이다.

(2) 화자와 청자가 서로 아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할 경우에 쓰이나 전치사 뒤에서 관용구를 이룰 때는 쓰이지 않는다. El hombre es escritor. (‘그 남자는 작가이다’)에서 el hombres는 '그 남자'의 의미로 아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나, la clase de español('스페인어 수업')의 español이나, café con leche('밀크 커피')의 leche는 물질 명사적으로 사용되었기 대문에 정관사를 수반하지 않는다.

(3) 언어의 명칭이 문두에서 주어로 사용될 때는 El español es interesante. (‘스페인어는 재미있다.’)처럼 정관사를 사용하나, hablar(‘말하다’) 직후에 언어의 명칭이 올 경우에는 Hablo español. (‘스페인어를 할 줄 안다’)처럼 반드시 생략한다.  그러나, hablar와 언어 사이에 Hablo bien el español. (‘스페인어를 잘 할 줄 안다’)처럼 부사가 올 경우 생략이 불가능하다. estudiar(‘공부하다’), aprender(‘배우다’) 뒤에서도 생략 가능하다. 따라서, Estudio (el) español. (‘스페인어를 공부한다’)에서는 관사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

(4) 존칭, 직위 및 부부를 일컬을 때 사용하나, 존칭이 호격일 경우 관사를 생략한다. Srta. Kim, ¿puede explicarme esto?('김양, 내게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에서는 호격이므로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으나 La Srta. Kim es simpatica. (‘김양은 친절하다’)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생략해서는 않된다.

(5) 시간 앞에서는 Ahora son las dos. (‘지금 두 시다’)에서처럼 반드시 정관사의 여성형이 사용된다.

(6) 고유명사라도 한정된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el México contemporáneo('현대 멕시코')에서처럼 정관사를 사용한다.

**부정관사**

부정관사의 경우에는 ‘하나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산 명사일 경우에만 쓰일 수 있으며 문맥상 처음 도입하는 대상을 지칭할 때 쓰인다. 가산명사라 할지라도 복수일 경우에 반드시 부정관사의 복수형을 써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관사의 복수형은 ‘약’, ‘몇몇의’라는 강조적 의미를 띤다.

|  |  |  |  |  |  |
| --- | --- | --- | --- | --- | --- |
| **관사와 명사** | | **부정관사** | | **무관사**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가산명사** | **단수** | un (libro) | una (casa) |  |  |
| **복수** | unos (libros) | unas (casas) | libros | casas |
| **불가산명사** | |  |  | dinero | leche |

**s**er(’-이다)의 보어로 명사가 쓰일 경우 단수일 경우에는 Es un libro.('책이다')에서처럼 대개는 부정관사가 쓰이고 복수일 경우에는 Ellos son pintores. ('그들은 화가이다.')에서처럼 생략이 된다. 그러나, 단수라할지라도 Ella es católica.('그녀는 카톨릭신자이다')  
처럼 직업, 국적, 종교 등의 의미를 지닌 경우는 부정관사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일 경우일 경우라도 의미가 특화되었을 경우 부정관사를 쓴다. 그래서, Juan es un español raro.('후안은 이상한 스페인 사람이다')처럼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유형용사**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소유사라고 한다.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이를 소유형용사라 명명하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위치에 따라 전치형과 후치형으로 나눈다. ‘내 친구’라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치형을 써서 ‘mi amigo’라고 할 수 있다. 후치형을 쓰는 경우 부정관사를 쓰면 un amigo mío(‘내 친구 중의 한명’)의 의미가 되며, 정관사를 쓸 경우에는 el amigo mío(‘바로 그 내 친구’)라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전치형과 후치형은 의미적인 차이라기 보다는 문맥적인 뉘앙스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다. 양자가 모두 수식을 받는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를 해야 한다. 또한 3인칭의 경우에는 문맥상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명확할 경우에는 su casa나 la casa라고 표현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미의 모호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la casa de Ud., la casa de el, la casa de ella 등의 형식으로 소유의 전치사 de를 사용하여 그 지칭 대상을 명확히 표현한다.   |  |  |  |  | | --- | --- | --- | --- | | **소유형용사** | | | | | **전치형** | | **후치형** | | | **단수** | **복수** | **단수** | **복수** | | mi | mis | mío(a) | míos(as) | | tu | tus | tuyo(a) | tuyos(as) | | su | sus | suyo(a) | suyos(as) | | nuestro(a) | nuestros(as) | nuestro(a) | nuestros(as) | | vuestro(a) | vuestros(as) | vuestro(a) | vuestros(as) | | su | sus | suyo(a) | suyos(as) |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는 후치형 소유형용사와 형태가 같으며 정관사와 함께 쓰이고, 지칭을 받는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를 시킨다. ‘네 형과 나의 형이 어디 있지?’라는 표현은 ¿Dónde están tu hermano y el mío? 라고 하여 hermano라는 명사를 중복해서 쓰지 않고 소유 대명사 el mío로 표현을 한다. 이에 대한 답으로 ‘너의 형은 서울에 있지만 나의 형은 멕시코에 있어’라는 표현은 El tuyo está en Seúl, pero el mío está en México.라고 함으로써 문맥상 모호하지 않은 명사일 경우에는 대부분 대명사로 바꾸어서 쓴다.  ser(‘-이다’)의 보어로 소유사가 쓰인 경우는 후치형 형용사로 보거나 정관사가 생략된 소유대명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quellas corbatas son suyas y éstas son tuyas.라는 예는 ‘저 넥타이들은 그의 것들이고 이것들이 나의 것들이다’라고 이해가 되며, 이때 suyas나 tuyas는 형용사로도 대명사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정관사가 생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쓰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Cuáles son las suyas entres estas plumas? Éstas son las mías.는 ‘이 펜들 중에서 당신의 것은 어느 것들입니까?, 이것들이 저의 것입니다.’처럼 그 선택적인 제약이 클 경우에 ser동사 뒤에라도 정관사를 사용한다.   |  |  | | --- | --- | | **소유대명사** | | | **단수** | **복수** | | el mío(la mía) | los míos(las mías) | | el tuyo(la tuya) | los tuyos(las tuyas) | | el suyo(la suya) | los suyos(las suyas) | | el nuestro(la nuestra) | los nuestros(las nuestras) | | el vuestro(la vuestra) | los vuestros(las vuestras) | | el suyo(la suya) | los suyos(las suyas) |     　법과 시제(-ar동사 활용표) |
|  |
| |  |  |  |  |  | | --- | --- | --- | --- | --- | | [직설법](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직설법) | [현재](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직설법현재) | | [현재완료](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직설법현재완료) | | | hablo | | he      hablado | | | hablas | | has    hablado | | | habla | | ha      hablado | | | hablamos | | hemos hablado | | | habláis | | habéis hablado | | | hablan | | han     hablado | | | [부정과거](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직설법부정과거) | [불완료과거](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직설법불완료과거) | [과거완료](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직설법과거완료) | [직전과거](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직설법직전과거) | | hablé | hablaba | había      hablado | hube      hablado | | hablaste | hablabas | habías     hablado | hubiste   hablado | | habló | hablaba | había       hablado | hubo      hablado | | hablamos | hablábamos | habíamos hablado | hubimos  hablado | | hablasteis | hablabais | habíais    hablado | hubisteis hablado | | hablaron | hablaban | habían     hablado | hubieron hablado | | [미래](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직설법미래) | | [미래완료](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직설법미래완료) | | | hablaré | | habré       hablado | | | hablarás | | habrás     hablado | | | hablará | | habrá      hablado | | | hablaremos | | habremos hablado | | | hablaréis | | habréis    hablado | | | hablarán | | habrán     hablado | | | [접속법](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접속법) | [현재](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접속법현재) | | [현재완료](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접속법현재완료) | | | hable | | haya       hablado | | | hables | | hayas     hablado | | | hable | | haya      hablado | | | hablemos | | hayamos hablado | | | habléis | | hayáis    hablado | | | hablen | | hayan     hablado | | | [불완료과거](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접속법불완료과거) | | [과거완료](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직설법과거완료) | | | hablara | hablase | hubiera      hablado | hubiese      hablado | | hablaras | hablases | hubieras     hablado | hubieses     hablado | | hablara | hablase | hubiera      hablado | hubiese      hablado | | habláramos | hablásemos | hubiéramos hablado | hubiésemos hablado | | hablarais | hablaseis | hubierais    hablado | hubieseis    hablado | | hablaran | hablasen | hubieran     hablado | hubiesen     hablado | | [미래](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접속법미래) | | [미래완료](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직설법미래완료) | | | hablare | | hubiere      hablado | | | hablares | | hubieres     hablado | | | hablare | | hubiere      hablado | | | habláremos | | hubiéremos hablado | | | hablareis | | hubiereis    hablado | | | hablaren | | hubieren     hablado | | | [명령법](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명령법) | [긍정명령](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긍정명령) | | [부정명령](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부정명령) | | | habla | | no hables | | | hable | | no hable | | | hablemos | | no hablemos | | | hablad | | no habléis | | | hablen | | no hablen | | | [가정법](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가정법) | [불완료조건](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가정법 과거) | | [완료조건](http://www.pufs.ac.kr/~espanol/estudio/teaching/modoytiempo.htm#가정법 과거완료) | | | hablaría | | habría     hablado | | | hablarías | | habrías    hablado | | | hablaría | | habría      hablado | | | hablaríamos | | habríamos hablado | | | hablaríais | | habríais    hablado | | | hablarían | | habrían     hablado | | |

직설법은 현실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쓰이는 법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 혹은 일어남직한 일, 반복되는 동작이나 습관 등을 표현할 때 쓰인다.

**직설법현재**

1. 한번 일어난는 단순한 동작  
   -Ahora hablo con la profesora.

2. 습관  
    -Hablo con la profesora todas las mañanas.

3. 확정적인 미래  
   -Hablo con la profesora esta tarde.

4. 불변의 진리  
    -La Tierra gira alrededor del sol.

**직설법 현재완료**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완료된 내용이 현재와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이다. 주로 현재까지의 경험을 표현하는데 쓰이고, 영어에서와는 달리 이제 막 끝난 행위나 일정 기간 동안 행해온 일에 대해서는 전자는 "acabar de 동사원형", 후자는 "hace 기간 que 현재형"의 구문을 선호한다.

1. 경험  
    -¿Has estado en Madrid alguna vez? He estado allí  varias veces.

2 이제 막 끝난 행위  
   -Él se ha ido.(=Él acaba de irse.)

3. 지속  
   -Hace un mes que estudio español.

**직설법 부정과거**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의 한 시점을 기준으로 완결된 내용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 Recibí una carta suya hace dos días.  
 - Estudió mucho ayer por la tarde.

**직설법불완료과거**

이 시제는 영어에는 없는 시제로 과거에 반복되거나 지속된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이다. 과거 진행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현재 시제 대신 쓰여 공손한 표현법이 되기도 한다.

1 과거에 습관적으로 반복되었던 내용  
   -Antes no estudiaba mucho.  
   -Cuando éramos jóvenes, íbamos a la montaña a menudo.

2 단순과거와 함께 쓰일 때 과거에 진행되고 있던 행위나 상황을 표현  
   -Eran las once cuando Jorge me llamó por teléfono.  
   -Yo dormía cuando ella entró en mi cuarto.

3 과거에 시도했으나 종결짓지 못한 내용을 표현  
   -Salía cuando sonó el teléfono.  
   -Precisamente ahora me marchaba. (Estaba a punto de marcharme.)

4 현재의 의미로 공손한 표현  
   -¿Qué deseaba Ud.? Deseaba ver al presidente.   
   -Quería pedirle un favor a Ud.

**직설법과거완료**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보다 더 과거인 내용을 나타내는 시제이다. 이보다 더 선행된 시제가 더 이상 없으므로 완료, 불완료와 관계 없이 대과거의 형태로 쓰인다.  
-Él vendí su casa en que había vivido más de treinta años.

**직설법직전과거**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나타내는 데 쓰였으나, 근래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직설법 부정과거형으로 이를 대신한다.  
 -Tan pronto como hube comido, salí de casa.  
(= Tan pronto como comí, salí de casa.)

**직설법미래**

미래의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순간에 완결되는 동작이나 습관, 반복 등을 모두 이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1 단순 미래  
   -Te esperaré en el bar.  
    -El próximo año iremos de turismo a América Latina.  
      비교) 근접미래는 현재나 "ir a 동사원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Te espero en el bar.  
               -Voy a esperarte en el bar.

2 가능  
  -Serán las diez y media.  
  -¿Qué estará haciendo mi hermano ?

3 간접 명령  
  -No marcharás.

4 정중한 부탁  
   -¿Me invitarás una cocacola?

**직설법미래완료**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보다는 후행해서 일어나는 일이나 미래의 그 시점까지는 완료되어 있을 행위나 동작을 표현하는데 쓰임.

1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이루어졌을 일  
   -Cuando regrese mi mamá, ya habré limpiado la casa.

2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일  
   -Ya habrá empezado la película.

화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볼 때, 앞으로 일어나거나 하게 될 일을 예상하거나, 혹은 비현실적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을 상상, 가정할 때 쓰이는 법이다. 주로 종속절에 쓰이고, 이 경우 반드시 주절의 주어와 목적절의 주어가 달라야 한다. 이 법에서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에 의해 결정되는 상대시제이다.

**접속법 현재**

접속법은 상대시제로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 쓰인다.

1. 명사절에서의 접속법

명사절이라함은 명사가 주축이 되는 절을 일컫는다. 명사절은 명사가 문장성문들 중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열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절을 일컫는다.

1-1 주절

당위성, 필요성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 posible, probable, imposible, importante, bastante, suficiente, bueno, conveniente, mejor, fácil, difícil, necesario, preciso, menester... 등이 ser 동사와 함께 사용되거나, 이에 비준하는 동사들 poder, bastar, convenir, hace falta 등이 사용되는 구문에서 que절이 주절이 되며 이 절 내에 접속법이 사용된다.   
       -Convendrá que nos levantemos más temprano mañana.  
       -Es necesario que tomes el asunto con calma.  
         비교) Es necesario distraerse de vez en cuando.  
                Es indudable que hace mucho frío mañana.  
                No es seguro que regresen mañana.

1-2 목적절

1-2-1 주절의 동사가 희망, 명령, 청원, 충고, 허락, 금지, 필요 등의 의미를 띤 querer, desear, preferir, pedir, encargar, esperar, pretender, rogar, exigir, aconsejar, proponer, permitir, mandar, ordenar...일 경우 그 목적절에 접속법이 사용된다.  
    -Quiero que hables en español.  
       비교) Quiero hablar en español.  
       -La profesora me aconseja que estudie el derecho.  
       비교) La profesora me aconseja estudiar el derecho.

1-2-2 주절 주어의 감정 혹은 느낌, 의심, 불확실 등을 나타내는 alegrarse de, lamentar, tener miedo de, sentir, dudar, no creer...등의 동사일 때 그 목적절에서 접속법이 사용된다.  
      -Siento que no vengas a la fiesta.  
      -Estoy muy contenta de que trabajis mucho.  
      -Dudo que tenga razn tu amigo.

1-2-3 주절의 동사가 지각동사 ver, or, mirar... 이거나, 인식동사 creer, considerar, pensar, juzgar... 혹은 단정을 나타내는 동사일 경우에 주절이 긍정문이면 종속절에 직설법이 쓰이고, 주절이 부정문이면 종속절이 접속법이 쓰인다. 이와는 달리, 주절이 의문문이면 종속절에 직설법과 접속법 둘 다 가능하다.  
      -Creo que llueve esta tarde.   
      -No creo que llueva esta tarde.  
      -¿Crees que llueve esta tarde? /¿Crees que llueva esta tarde?

2. 형용사절에서의 접속법

선행사를 형용사적으로 수식하는 관계절에서 선행사의 의미가 화자의 의식 속에 체험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접속법을 사용해서 이를 표현한다.    
    -Juegará con la pelota que le compren.  
    비교) Juega con la pelota que le han comprado.            
    -No he visto jamás un hombre que hable tanto.  
    -Cuando uno esté triste, no hay nada que consuele tanto como la música.

3. 부사절에서의 접속법

시간, 양보, 목적 등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 접속법을 사용하여 일어나지 않은 일임을 표현한다.

3-1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cuando, mientras, en tanto que, siempre que, antes (de que, despus (de) que, hasta que, luego que, as que, tan pronto como, en cuanto, apenas...등이 이끄는 부사절에 접속법이 사용된다.   
          -Me llamará por teléfono cuando llegue.  
          비교) Me llama por teléfono cuando llega.  
          -Me lo dirá en cuanto se entere.  
          -Tan pronto como fume se pondrá a toser.  
          -Te esperaré hasta que llegues.  
          -Siempre me despierto antes de que suene el despertador.

3-2 '-임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지닌 aunque, a pesar de que, no obstante que 등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나, '아무리 ~해도~하다'의 의미를 지닌 por ~ que ~의 구문에서 접속법을 사용한다.  
         -Aunque haga mucho fro, vamos a salir.  
          비교) Aunque hace mucho frío, vamos a salir.   
         -Iremos a nadar a pesar de que esté nublado.  
         -No obstante que llegue a tiempo, no lo podrá recibir el director.  
         -Por más que juegue al tenis, no se cansará.  
          비교) Por más que juega al tenis, no se cansa.  
         -Por mucha ropa que se ponga, tendrá frío.  
         -Por muy listo que seas, tienes que trabajar más.  
         -Por muy lejos que viva, le encontraremos.

3-3 목적의 부사절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para que, a que, a fin de que, con el objeto de que 등이 이끄는 부사절에서 접속법을 사용한다. de modo(manera, forma, suerte) que 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접속법이 쓰이면 목적을 나타내는 '~위하여'의 의미가 되고 직설법이 쓰이면 '~때문에'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Compro la corbata para que te la pongas.  
         비교) Compro la corbata para ponermela.  
       -El anciano cierra la puerta a fin de que no entren los niños.  
       -Él se situa con el objeto de que nadie lo pueda ver.   
       -Explícalo de modo que sea comprensible.  
       -Estás diciendo una tontera, de manera que no te hacen caso.

3-4 조건을 나타내는 si, con tal (de) que, en caso (de) que, a no ser que, a menos que, salvo que 등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서 접속법을 사용한다.  
       -Te presto el dinero con tal (de) que me lo devuelvas mañana.  
       -Puedes dar la fiesta aquí, a condición de que no invites a demasiados amigos.  
       -Llegaré a tiempo, a no ser que(=a menos que) pierda el tren.  
       비교) Si no pierdo el tren, llegaré a tiempo.

3-5 방법을 나타내는 como, segn, como si, cual si, igual que si, sin que... 등의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서 접속법을 사용한다.  
     -Hágalo como quiera Ud.  
     -Según se encuentre mañana el enfermo, van a tomar la decisión de operarlo.

**접속법현재완료**

접속법 현재완료시제는 접속법현재가 쓰이는 문맥에서 그 상이 완료의 의미를 지닐 때 쓰인다.

  -No creo que María ya haya leído este libro.

       비교) Creo que María ya ha leído este libro.

       -Espero que Carlos haya venido cuando tú vuelvas.

       비교) Carlos habrá venido cuando tú vuelvas.

**접속법불완료과거**

접속법 불완료과거시제는 접속법현재가 주로 쓰이는 해당 문맥이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을 때 종속절에 쓰인다.

1 비현실적이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El periódico no dice que hubiera mucha gente.

     비교) El periódico dice que hubo mucha gente.

     -Creía que María sabía esto.

      비교) No creía que María supiera esto.

2 주로 접속법을 수반하는 표현들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경우

    -Le supliqué que me llamara.

    -Era lógico que nos preocupramos.

3 가정법 과거(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

   -Si yo tuviera(tuviese) dinero, compraría un coche.

   -Si yo tuviese dinero, compraría un coche.

**접속법 과거완료**

접속법 과거완료시제는 해당 문맥이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그 상이 완료의 의미로 쓰였을 때 종속절에 쓰인다.

-No estaba seguro que ellos hubieran vuelto.

-Si hubiera(hubiese) hecho buen tiempo ayer, habra(hubiera) salido yo.

**접속법 미래**

직설법 과거 3인칭 복수 형태의 어미 -ron을 떼어내고 hablar(habla-ron): hablare, hablares, hablare, hablremos, hablareis, hablaren으로 활용형을 표현한다. 이 시제는 이론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또는 미래의 내용을 가정할 때 쓰이나, 속담같은 굳어진 표현이외에는 현대 스페인어에서는 접속법현재시제로 이를 대신 표현한다.

-Adonde fueres, haz lo que vieres.

  비교) Adonde vayas, haz lo que veas.

**접속법 미래완료**

고문서에 쓰였을뿐 현대 스페인어에서는 직설법 현재 완료 시제로 이를 대신함.

       -Si para Navidad no hubiere vuelto(he vuelto), no me esperen Uds. más.

**독립절에서의 접속법**

다음과 같은 독립절에서는 관용적으로 접속법이 쓰임.

     1 quizá(s), tal vez, acaso 등이 동사 앞에 쓰일 경우

       -Tal vez ya sepas(sabes) que llegan mañana.

       -Quizá esté(está) enfermo.

       비교) Lloverá, tal vez, la semana que viene.

             Tendrá, acaso, veinte años.

       주의) A lo mejor no viene.

     2 ojalá 강한 원망

      -¡Ojalá venga mañana !

      -¡Ojalá viniera mañana !

     3 관계사와 함께 양보의 의미로

      -Llame quien llame, no le abras la puerta.

      -Llgue cuando llegue, avísame.

      -Vayas donde vayas, te seguiré.

스페인어에서의 명령문은 tú와 vosotros에 대한 긍정 명령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법 현재의 활용형과 그 형태가 같다. 목적격 대명사가 수반될 경우에는 긍정일 경우에는 동사 뒤에 붙여서 쓰고 부정일 경우에는 동사 앞에 전치시킨다.

1 목적격과 명령문

        -Tráiganmelos ustedes. → No me los traigan.

        -Dímelo. → No me lo digas.

2. 불규칙형태

        decir-di / hacer-haz / poner-pon / ser-sé / valer-val / ir-ve / salir-sal / tener-ten / venir-ven

3 다른 형식의 명령문

   3-1 직설법 현재형

             -Mañana vienes a mi casa y me lo explicas.

   3-2 직설법 미래형

             -No matarás.

    3-3 동사원형 / a + 동사원형

             -¡Correr !

             -¡A correr !

     3-4 que + 접속법 현재

             -Que hable usted.

      3-5 부사 혹은 명사

             -¡Adelante !

             -¡Fuera !

             -¡Silencio!

가정법에 주로 쓰이는 조건 시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흔히 쓰인다.

1 과거에서 본 미래

   -El jefe nos prometió que nos pagaría más.

2 과거의 가능성

   -Serían las cinco de la madrugada cuando empezó a llover.

  비교) Eran las cinco de la madrugada cuando empezó a llover.

  -Tendría ella entonces veinte años.

  비교) Tenía ella entonces veinte años.

3 정중한 표현

   -¿Podría pasarme la sal ?

   Desde luego./Por supuesto./Claro que s./ Aqu tiene./ Aqu est.

 불완료 조건시제는 과거에서 보아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미 이루어져 있을 일

 -Carlos me dijo que para el prximo lunes habra venido.

**가정법 과거**

1 현재: 단순가정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

   Si 직설법현재, 직설법미래

   -Si tengo dinero, comprar esta bicicleta.

2 과거: 현재사실에 반대 (현재에 일어날 수 없는 일)

   Si 접속법과거, 단순조건

   -Si tuviera dinero, comprara esta bicicleta.

**가정법 과거완료**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사실에 반대는 가정, 즉,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표현할 때 쓴다. 그 형태는 종속절에는 \"Si 접속법완료과거\"을, 주절에는 완료조건 시제를 써서 표현한다.

-Si hubiera(hubiese) tenido dinero, habra comprado esta bicicleta.

<주요표현 물건사기>

|  |  |
| --- | --- |
|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물건을 살 때 유용한 표현을 익혀 봅시다.**  **<보기> Una corbata(넥타이), bonito(예쁜)**  **A: ¿Qué desea Ud.? (무엇을 사시려구요?)**  **B: Deseo una corbata. (넥타이를 사려구합니다.)**  **A: ¿Cómo  la  quiere? (어떤 걸 원하세요?)**  **B: La quiero bonita. (예쁜 걸 원합니다.)** | |
| 1. una falda(치마), estrecho(폭이 좁은) | 11. un chaleco(조끼), verde(초록색의) |
| 2. una chaqueta(웃도리), largo(긴) | 12. un pañuelo(손수건, 스카프), amarillo(노란색의) |
| 3. una camisa(와이셔츠), grande(큰) | 13. unas medias(스타킹), transparente(투명한) |
| 4. un par de guantes(장갑 한 켤레), pequeño(작은) | 14. un par de calcetines(양말 한 켤레), barato(값싼) |
| 5. dos camisetas(두벌의 와이셔츠), blanco(흰색의) | 15. un cinturón(벨트), caro(비싼) |
| 6. unos pantalones(바지), negro(검은 색의) | 16. un par de zapatos(구두 한 켤레), de buen precio(좋은 가격의) |
| 7. un abrigo(외투), rojo(붉은) | 17. una bolsa(블라우스), de tela (천으로 된) |
| 8. un sombrero(모자), azul(푸른 색의) | 18. una cartera(지갑), de piel(가죽으로 된) |
| 9. una gabardina(바바리코트), gris(회색의) | 19. un mochila(색), de cuero(가죽으로 된) |
| 10. una bufanda(목도리), marrón(갈색의) | 20. una maleta(여행가방), de buena calidad(품질이 좋은) |

**<재귀동사>**

**1) 형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재귀대명사(me, te, se, nos, os, se)를 덧붙여서 표현한다. 기본형은 동사의 끝에 -se를 붙여서 lavarse'스스로를 씻다.'처럼 표현한다.**

**a. 규칙형/불규칙형**

|  |  |  |  |
| --- | --- | --- | --- |
| **인칭** | **재귀대명사** | **lavarse '씻다'** | **levantarse '일어나다'** |
| Yo | **me** | me lavo | me levanto |
| Tú | **te** | te lavas | te levantas |
| Él, Ella, Ud. | **se** | se lava | se levanta |
| Nosotros, (-as) | **nos** | nos lavamos | nos levantamos |
| Vosotros, (-as) | **os** | os laváis | os levantáis |
| Ellos, Ellas, Uds. | **se** | se lavan | se levantan |

**b. 긍정명령형/부정명령형**

|  |  |  |
| --- | --- | --- |
| **인칭** | **긍정명령** | **부정명령** |
| Tú | Lávate. | No te laves. |
| Él, Ella, Ud. | Lávese. | No se lave. |
| Nosotros, (-as) | Lavemonos. | No nos lavemos. |
| Vosotros, (-as) | Lavaos. | No os lavéis. |
| Ellos, Ellas, Uds. | Lávense. | No se laven. |

**c. 목적격을 수반하는 경우**

**- ¿Puedo lavarme las manos? > ¿Puedo lavármelas?**

※(\* 목적격 대명사는 조사에 전치될 수도 있으나 재귀동사일 경우에는 본동사에 붙여서 쓰는 것이 어감이 더 좋다.)

- **Lávatela. No te las laves.**

**2) 용법**

**a. 재귀동사란 동사의 동작이 행위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A qué hora te levantas? 너 몇 시에 일어나니?**

**Me levanto a las siete. 나는 7시에 일어나.**

**b. 타동사와 재귀동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Lavo la camisa. 나는 와이셔츠를 씻는다.**

**Me lavo la cara. 나는 얼굴을 씻는다.**

**Me lavo las manos. 나는 (두) 손을 씻는다.**

**c. 재귀동사는 뒤에 "전치사 + 목적어"의 형태를 목적어로 받을 수도 있다.**

**Eva no se acuerda de mí. 에바는 나를 기억하지 못 한다.'**

**3) 재귀 동사의 종류**

**a. 타동사 > 재귀동사**

**acostarse 눕다; bañarse 목욕하다; levantarse 일어나다; despertarse 깨어나다; lavarse 씻다; casarse 결혼하다; divertirse 즐기다; sentarse 앉다; ponerse 입다; quitarse 벗다**

**b. 자동사 > 재귀동사**

**subirse 오르다; venirse 오다; irse 가버리다; morirse 죽다; salirse 나가다; huirse 도망쳐버리다; dormirse 잠들다**

**c. 전치사구가 오는 경우**

**parecerse a -와 닮다; reírse de -을 비웃다; acordarse de 기억하다; burlarse de 비웃다; arrepentirse de 후회하다; jactarse de 으스대다; quejarse de 불평하다; alegrarse de 기뻐하다**

 **moai** () 09/11[13:03]   
A falta de pan buenas son tortas. 꿩대신 닭

**moai** () 09/11[13:04]   
A buen hambre no hay pan duro. 시장이 반찬이다.

**수동태**

**1. 형태 : Se + 3인칭 단수 혹은 복수 동사**

**Se oyen ruidos extraños.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Se rechazará su propuesta.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Se recibió la carta ayer. 어제 편지를 받았다.**

**2. 화자의 주된 관심이 동작의 주체보다 대상에 있는 경우에 사용**

**Se quemaron los edificios. 건물이 불탔다.**

**Se cerró la puerta. 문이 닫혔다.**

**Se explica la gramática para los alumnos. 학생들에게 문법이 설명된다.**

**비교)**

**(1) 능동태**

**- El profesor explica la gramática para los alumnos.**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문법을 설명하신다.**

**(2) Ser + 과거분사**

**- La gramática fue explicada por el profesor para los alumnos.   
문법이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설명되어졌다.**

**(3) Estar + 과거분사**

**- Los edificios están quemados.   
건물들이 불에 탄 상태이다.**

**문제) 틀린 문장은?**

**① La ciudad fue destruida durante la Guerra Civil.   
② Esas medicinas fueron distribuidas por todo el país.   
③ El tesoro está escondido.   
④ El problema de los trabajadores está resuelto por el sindicato.   
⑤ La gente está alarmado por las malas noticias.**

**김경희** () 09/13[13:04]   
Quien mal anda, mal acaba. 씨뿌린 대로 거둔다.

<Se의 다양한 용법>

**형태는 se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용법을 잘 구분해야 한다.**

**1. 간접 목적격**

☆ 3인칭 간접 목적격 대명사가 직접 목적격 대명사 앞에 쓰일 경우에 le나 les대신 se를 사용한다.

Se lo regalo a Pedro. 뻬드로에게 그것을 선물했다.

Se las vedió por un millón. 백 만원에 팔았다.

**2. 재귀대명사**

☆ 재귀대명사와 타동사를 함께 써서 동작의 행위가 다시 주어에게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Pedro se lava los dientes tres veces al día. 뻬드로는 하루에 3번씩 이를 닦는다.

Se arrepentió de haberle reprochado. 야단친 것에 대해 후회를 했다.

**3. 수동**

☆ 동작의 행위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쓰이는 수동태이다.

Se rompió el coche. 차가 망가졌다.

Se me rompió el coche. 내 차가 망가졌다.

**4. 상호**

☆ '서로', '상호간의'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No se hablan Pedro y María. 뻬드로와 마리아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Se miran mucho. 서로 많이 쳐다본다.

**5. 무인칭**

☆ 이 경우에 항상 3인칭 단수로 쓰이며 형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

Aquí se vende pan. 여기 빵을 판다.

Se lee mucho en México. 멕시코에서는 독소를 많이 한다.

Aquí se trabaja mucho. 여기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한다.

**moaikim** () 09/18[14:39]   
De donde no hay, no se puede sacar.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현재분사>

1. 형태

1)규칙

-ar > -ando; hablando, comprando, tomando...

-er > -iendo; comiendo, aprendiendo, bebiendo...

-ir > -iendo; viviendo, escribiendo, saliendo...

2) 불규칙

**e > i**

ver > viendo

decir > diciendo

venir > viniendo

pedir > pidiendo

repetir > repitiendo

servir > sirviendo

vestir > vistiendo

**o > u**

morir > muriendo

poder > pudiendo

dprmir > durmiendo

morir > muriendo

**-iendo > -yendo**

caer> cayendo

traer > trayendo

huir > huyendo

creer > creyendo

leer > leyendo

oír > oyendo

traer > trayendo

ir > yendo

2. 용법

1) estar + 현재분사 => 진행형

**@j@** 영어와는 달리 스페인어에서 estar동사와 함께 쓰이는 진행형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현재형으로도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estar + 현재분사"를 쓰는 경우가 더 강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경우에도 불완료과거만으로 진행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다.

¿Qué estás haciendo ahora?

Estoy estudiando.

¿Está escuchándome?

Sí, le escucho.

2) ir, seguir, venir, continuar, llevar, andar 등을 사용해서 진행의 의미를 강화시킬 수 있다.

Voy corriendo.

Vienes cantando.

Continuarás trabajando aquí.

3) 분사구문에서 조건, 양보, 이유, 상태 등을 표현한다.

Hablando con él, lo entenderás mejor.

¿Estando enfermo, quieren salir?

 **moaikim** () 09/20[10:20]   
Mas vale un pajaro en mano que cientos volando. 잡은 토끼 한 마리가 산토끼 열 마리보다 낫다.

<과거 분사>

1. 형태

1) 규칙

-ar > -ado; hablado, comprado, tomado...  
-er > -ido; comido, aprendido, bebido...   
-ir > -ido; vivido, salido, decidido...

2) 불규칙

**-to로 끝나는 경우**  
abrir > abierto  
cubrir > cubierto  
escribir > escrito  
descubrir > descubierto  
morir > muerto   
poner > puesto  
resolver > resuelto  
romper > roto   
ver > visto  
volver > vuelto

**-cho로 끝나는 경우**  
hacer > hecho  
decir > dicho  
satisfacer > satisfecho

2. 용법

1) 복합시제

① 현재완료

- 조동사haber의 현재형과 본동사의 과거분사

-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 미리 완료된 내용 혹은 그 결과나 상황이 현재와 관련이 있을 때 쓰이는 시제이다. 또한 막 끝난 행위를 표현할 때도 쓰이는 시제이다.

he amado   
has amado   
ha amado   
hemos amado   
habéis amado   
han amado

Hoy me he levantado a las cinco.   
He visitado hoy a tu hermano.   
Este año ha llovido mucho.   
Mi madre ha muerto hace cinco años.   
He estado de pie estas dos horas.   
He dicho.   
Él se ha ido.

② 과거완료

- 조동사haber의 불완료과거형과 본동사의 과거분사

-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더 과거인 내용을 표현할 때 쓰인다.

había amado   
habías amado   
había amado   
habíamos amado   
habíais amado   
habían amado

Ya había leído yo la revista cuando llegó tu tío.   
Él me dijo que había mandado la carta.   
Él vendió su casa en que había vivido más de treinta años.

③ 미래완료

- 조동사haber의 미래형과 본동사의 과거분사

- 기준이 되는 미래보다 앞서 일어난 내용을 표현할 때 쓰인다.

habré amado   
habrás amado   
habrá amado   
habremos amado   
habréis amado   
habrán amado

Para el póximo lunes ya habré terminado la tarea.

2)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시켜야 한다.

el libro comprado  
las ventanas abiertas

3) 주격보어나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 각각 주어나 목적어의 성과 수에 일치시켜야 한다.

La profesora está contenta.   
Tengo escritas las cartas.

4) 때와 이유를 뜻하는 분사구문에 사용될 수 있다.

Acabadas las tareas, salí de casa para ver a los amigos.   
Tomada la decisión, nadie podía aconsejarle.

5) "ser + 과거분사"의 형태로 수동태를 이룬다.

El museo fue construído por los ciudadanos.   
La profesora Kyunghee es muy amada de sus alumnos. (@j@ 희망사항!!!)

6) "estar + 과거분사"의 형태로 행위가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다.

El museo está construído.   
Las ventanas están limpiadas.

 **moaikim** () 09/20[10:45]   
En boca cerrda, no entran moscas. 침묵이 금이다.   
**moaikim** () 09/25[21:45]   
Juicio precipitado, casi siempre errado. 성급한 판단은 거의 그릇된 경우가 많다.

**등위 접속사**

**Y**

**1) 접속사 y는 영어의 and에 해당하는 등위 접속사로 동일한 품사 범주들을 등위 접속시킬 때는 우리말의 ‘-와/과’나 ‘-랑’의 의미가 된다.**

**Juan y Carlos comen mucho. 후안과 까를로스는 많이 먹는다.**

**2) 세 개 이상의 단위들을 연결시켜 주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사용해 주면 된다.**

**Los niños, jóvenes y viejos están todos juntos. 애들이랑, 젊은이들이랑 노인들이 모두 함께 있다.**

**3)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음이 [i]일때는 발음이 중첩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y를 e로 바꾼다.**

**Padre e hijo 아버지와 아들**

**Estudiamos español e inglés. 우리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배운다.**

**@j@ 그러나, [i]로 시작되는 단어일지라도 이 모음이 이중모음의 일부일 경우에는 y를 e로 바꾸지 않는다.**

**oro y hierro 금과 쇠**

**tigre y hiena 호랑이와 하이에나**

**4) 문장과 문장을 등위 접속할 때는 ‘-하고’나 ‘그리고’의 의미가 된다.**

**Pedro come mucho y Andrés bebe mucho. 뻬드로는 식사를 많이 하고 안드레스는 술을 많이 마신다.**

**5) 명령문 뒤에 쓰일 경우 '-하면'의 의미가 된다.**

**Levántate temprano y podrás tomar el tren. 일찍 일어나면 기차를 탈 수 있을 거야.**

**O**

**1) 접속사 o는 영어의 or에 해당하며, ‘혹은’, ‘또는’, ‘아니면’ 등의 선택의 의미를 띤다.**

**¿Quieres una manzana o una naranja? Una manzana, por favor.**

**사과를 원하니 오렌지를 원하니? 사과를 원해.**

**Los hermanos o los amigos pagarán los daños.**

**형제들이 혹은 친구들이든 손해배상을 할 것이다.**

**2) 뒤에 나오는 단어가 동일한 o음으로 시작될 경우에 소리의 중첩을 막기 위해 u로 바꾼다.**

**Hace siete u ocho días que regresaron. 7, 8일 전에 돌아왔다.**

**Uno u otro tiene que asistir a la ceremonia. 누구든 그 의식에 참석해야 한다.**

**3)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경우에는 “o A o B”로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Entonces, o confirmo tu abadia o tienes que dejar el monasterio.**

**그렇다면 내가 자네의 수도원장직을 보장해주거나 자네가 수도원을 떠나야 한다네.**

**4) 명령문 다음에 접속사 o가 사용된 경우는 그 의미가 ‘-가 아니면’으로 받아들여진다. Escuchame o vete. 내 말을 듣든지 아니면 가라.**

**PERO**

**1) 접속사 pero는 영어의 but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러나’라는 역접의 의미를 띠는 등위접속사이다.**

**Él es guapo pero antipático. 그는 멋있지만 불친절하다.**

**@j@ 고어체에서는 mas가 pero의 의미로 쓰였다.**

**No lo vi, mas le escribí. 그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편지는 썼다.**

**2)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복합문을 만든다.**

**La profesora no es hermosa pero tiene su encanto.**

**여선생님은 아름다우시지는 않지만 매력적이다.**

**Los árboles no tienen hojas ahora, pero muy pronto las tendrán.**

**나무들은 지금 잎이 없지만 곧 잎이 생길 것이다.**

**NI**

**1) ‘-도 아니고’라는 의미인데 이는 y의 부정형이라고 볼 수 있다.**

**No tengo padre ni madre.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다.**

**@j@ 최근 구어체에서 ni를 반복해서 써주는 경향이 짙다.**

**No tengo ni padre ni madre.**

**2) 주어에 사용될 경우에는 ni를 반복 사용하여야 한다.**

**Ni Juan ni Pedro vinieron. 후안도 뻬드로도 오지 않았다.**

**SINO**

**1) 숙어적으로 “no A sino B”라는 형식에서 ‘A가 아니라 B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No es azul sino verde. 푸른색이 아니고 초록색이다.**

**No regresé sino que me quedé en el bosque. 돌아오지 않고 나는 숲에 남아 있었다.**

**2) “no sólo A sino (también) B”라는 형식으로 쓰이면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이다.**

**No sólo tengo manzanas sino también tomates. 사과뿐만 아니라 토마토도 가지고 있다.**

**BIEN**

**1) “bien A bien B”의 형식으로 ‘A 때문에도 B때문에도’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주로 사용된다.**

**Bein por mí mismo, bien por mi familia no dejaré de hacer eso.**

**내 자신 때문에도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라도 그것을 하기를 그만두지 않을 거야.**

**moai** () 10/04[10:14]   
Ver la paja en el ojo del vecino y no la viga en el nuestro.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인과의 접속사>

**PORQUE**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문두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주절 뒤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끈다.**

**No lo hice porque no lo quise. 나는 그것을 했어, 왜냐하면 그것을 원했거든.**

**PUES, PUES QUE**

**1)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문두에서는 쓰이지 않고 주절 뒤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끈다.**

**No quiero trabajar más, pues (que) no me van a pagar más.**

**더 일하기 싫어요, 돈을 더 지불해 줄 것 도 아닌 걸요.**

**2) 문두에 쓰일 때는 별 의미없이 말의 서두를 꺼낼 때 시간을 벌기 위해 쓰인다.**

**¿No quieres trabajar? Pues, sí. 너 일하기 싫지? 음, 그래.**

**PUESTO QUE / DADO QUE / YA QUE**

**puesto que, dado que, ya que는 porque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데 차이는 후자가 문미에만 출현하는데 반해 이들 접속사들은 문두나 문미라는 위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니까’ 또는 ‘-하므로’라는 의미이다.**

**Será verdad puesto(dado/ya) que tú lo dices. 네가 말하는 거니까 정말일거야.**

**DE MODO(MANERA, FORMA, SUERTE) QUE**

**1)‘-하기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종속절에 직설법을 사용한다.**

**Llovía a cántaros, de modo que tuvimos que refugiarnos a toda prisa.**

**비가 억수같이 와서 우리는 서둘러 피해야 했다.**

**2)‘-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종속절에 접속법을 사용한다.**

**Voy a llamar a Teresa de modo que me cuente lo ocurrido.**

**일어난 일을 내게 얘기하도록 떼레사를 부르겠다.**

**COMO**

**1) 문두에 접속사로 쓰이면‘-하였으므로’나 ‘-이니까’와 같이 이유를 나타낸다.**

**Como lo vi, lo sé.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안다.**

**Como hubo disgustos, se resolvió la sociedad. 불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붕괴되었다.**

**2) 전치사로 쓰이면‘-처럼’의 의미로 쓰인다.**

**Has hablado como profesor. 너는 선생님처럼 말하는구나.**

**POR CONSIGUIENTE / POR (LO) TANTO / POR ESO / ASÍ QUE**

**‘따라서’나 ‘그러므로’의 의미를 띠는 인과의 접속사들이다. 같은 표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발화상에 인과의 접속사를 여러번 써야 할 경우에는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Él gasta más de lo que tiene, por consiguiente, no tardará mucho en arruinarse.**

**그는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므로 오래지 않아 파산하게 될 것이다.**

**CONQUE, CON QUE**

**1) conque가 단일접속어로 쓰이는 경우에 ‘그러니’라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다.**

**Hace frío, conque no salgas sin abrigo. 날씨가 추우니 외투를 입지 않고는 나가지 마라.**

**2) 그러나 con que가 두 단어로 된 복합 접속사로 쓰일 경우에는 ‘-하는 것으로써’라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 이 경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정은 접속법을 사용해서 표현한다.**

**Se contentará con que le pagues la mitad de la deuda.**

**네가 그에게 빚을 절반만 갚아도 그는 만족해 할 것이다.**

**QUE**

**1) 이유를 부연 설명할 때 ‘-이니까’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No te rías, que no tengo ganas de hacer bromas.**

**나는 농담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니까 웃지마.**

**Déjame en paz, que estoy muy cansado.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귀찮게 하지마.**

**2) 영어의 접속사 that와 마찬가지로 종속절로 쓰이는 명사절을 표시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로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표시하며 이 경우 우리말로는 ‘-하는 것’ 혹은 ‘-라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No creo que venga ella. 나는 그녀가 오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Se habla de que aumentarán los impuestos. 세금이 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LUEGO**

**1) 접속사로 쓰이면 ‘-하므로’ 혹은 ‘그러므로’의 의미로 이해된다.**

**No tenía ganas de ver la película, luego me quedé en casa.**

**나는 영화를 보러갈 기분이 들지 않아서 집에 남아 있었다.**

**2) luego que로 ‘-하고 나서’,‘-하자마자’ 라는 의미로 쓰인다.**

**Lo haré luego que acabe esto. 이걸 마치는 대로 그걸 할께.**

**3) luego는 부사로 쓰이면 '곧, 빨리'의 의미로 쓰인다.**

**Volveré luego. 곧 돌아올게.**

**TAN(TO) - QUE**

**tan(to)- que는 영어의 so-that 구문과 유사하다. 그 의미는 ‘너무 -해서 -하다’이다. 수식을 받는 품사가 명사일 경우에는 tanto를 사용하고 부사나 형용사일 경우에는 tan을 사용한다.**

**Había tanta gente que ellos no pudieron entrar.**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

**Habla tan fuerte que todos se enteran de lo que dice.**

**말을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가 이야기 하는 바를 알아들었다.**

**김경희** () 10/04[10:16]   
Oir, ver y callar. 백문이 불여일견.

<시간의접속사>

1) 종속절의 행위가 경험되었을 때, 즉 이미 일어났을 때 혹은 현재의 습관에 대한 기술일 때 종속 동사는 직설법을 쓴다.

Siempre entramos cuando entran los demás.

우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입장할 때 들어간다.

En cuanto come, se echa la siesta. 먹자마자 낮잠을 잔다.

Hasta que no la veo no estoy tranquila.

그녀를 보지 못할 때까지 나는 마음이 편치 않다.

Ese hombre bebe siempre que hay ocasión. 그 남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술을 마신다.

Cada vez que viene me trae un regalo. 그는 올 때마다 내게 선물을 갖다 준다.

Volví a casa después de que terminó la clase la profesora.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신 후에 나는 귀가했다.

Se acuesta después de que termina la televisión. 그는 텔레비젼이 끝나야 자리에 눕는다.

Guardamos la ropa hasta que se seca. 옷이 마를 때까지 보관해 드립니다.

2) 종속절의 행위가 아직 경험되지 않았으나 예상될 때, 즉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미래에 일어날 때 종속동사는 접속법이 된다.

Entraremos cuando entren los demás.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때 우리도 들어갈 것이다.

En cuanto coma, se echará la siesta. 먹저마자 낮잠을 잘 것이다.

Hasta que no la vea no estaré tranquila. 그녀를 보지 못할 때까지는 나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Ese hombre beberá siempre que haya ocasión. 그 남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술을 마실 것이다.

Cada vez que venga me traerá un regalo. 그는 올 때마다 내게 선물을 갖다 줄 것이다.

Volveré a casa después de que termine la clase la profesora.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신 후에 나는 귀가할 것이다.

Se acostará después de que termine la televisión. 그는 텔레비젼이 끝나야 자리에 누울 것이다.

Guardaremos la ropa hasta que se seque. 옷이 마를 때까지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3) 주의할 것은 접속사구 antes de que는 ‘-하기 전에’라는 의미로 주절의 시제를 기준으로 실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므로 과거와 현재 모두에 접속법이 쓰인다.

Se irán los alumnos antes de que entre la profesora. 학생들은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갈 것이다.

Se fueron los alumnos antes de que entrara la profesora. 학생들은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가버렸다.

Pase Vd. antes de que limpien el suelo. 바닥 청소를 하기 전에 들어오세요.

<양보의 접속사>

**AUNQUE**   
  
  
1) ‘비록 -이지만’ 혹은 ‘-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의미인데 anuque는 a pesar de que, aun cuando, no obstante와 같은 표현으로 대치될 수 있다. aunque가 이끄는 양보의 부사절에는 직설법과 접속법이 다 쓰일 수 있다. 직설법의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양보의 의미를 띠고, 접속법인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은 가정적인 일에 대한 양보의 의미를 표현한다.   
  
Aunque estoy mal, no voy a faltar a la clase. 현재 정말로 아프지만, 수업에 결석은 하지 않겠다.   
Aunque este mal, no voy a faltar a la clase. (사실은 아프지 않지만) 아프다할지라도 수업에 결석은 하지 않겠다.   
  
  
2) 미래에 대한 표현일 경우에는 가정이므로 접속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Aunque llueva mañana, iré a la clase. 내일 비가 온다할지라도 수업에 출석을 하겠다.   
  
  
**POR MUCHO (명) QUE / POR MÁS (명) QUE   
POR MUY 형 혹은 부사 QUE**‘아무리 -할지라도’의 의미로 사실일 경우에는 직설법을 쓰고 가정일 경우에는 접속법을 쓴다. 일반적으로는 가정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Por más que juega al tenis, no se cansa. 그는 테니스를 아무리 많이 쳐도 지치지 않는다.   
Por más que juegue al tenis, no se cansará. 그는 테니스를 아무리 많이 친다 해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Por mucho frío que haga, me ducho con agua fría. 아무리 날씨가 춥다고 할지라도 나는 찬 물로 샤워한다.   
Por más tonto que sea, no lo podremos engañar tan fácilmente. 그가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 쉽게 속일 순 없을 거야.   
Por más que grites, no te haremos ningún caso. 네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조금도 개의치 않겠다.   
Por muy listo que seas, tienes que trabajar más.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Por muy lejos que viva, le visitaremos. 아무리 멀리 산다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방문할 것이다.   
  
  
**Sea lo que sea와 같은 반복 구문**이런 반복 구문은 인칭에만 유의를 해서 숙어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1) Sea lo que sea 어떻든 간에   
Sea lo que sea, no estoy de acuerdo. 어떻든 간에 나는 반대이다.   
  
2) Diga lo que diga 무슨 말을 하든 간에   
Digas lo que digas, no te escucharé.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귀담아 듣지 않겠다.   
  
3) Haga lo que haga 무엇을 하든 간에   
Haga lo que haga, comuníquemelo. 무엇을 하든 간에 내게 연락을 하시오.   
  
4) Quiera que no quiera 원하든 말든 간에   
Quieras que no quieras, tienes que venir. 원하든 말든 간에 너는 와야 해.   
  
5) Venga o no venga 오든 안 오든   
Venga o no venga, tenemos que preparar la comida. 그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음식을 준비해야 돼.   
  
  
  
  
moai 10/11[09:48]   
No atajo sin trabajo. 노력없는 지름길은 없다.

<목적의 접속사>

**PARA QUE / A FIN DE QUE / A QUE / CON OBJETO DE QUE**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의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들로 종속절에는 접속법이 쓰인다.

Voy a llamar a Teresa para que me cuente lo ocurrido.

일어난 일을 내게 얘기하도록 떼레사를 부르겠다.

Llame a Teresa para que me contara lo ocurrido.

일어난 일을 내게 얘기하도록 떼레사를 불렀다.

Voy a apagar la luz para que te duermas. 네가 잠이 들도록 불을 꺼주마.

Me voy a fin de que puedas estudiar.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가마.

Apagaré la luz a que te duermas. 네가 잠이 들도록 불을 꺼주마.

Escríbalo con objeto de que te comprenda el público.

대중이 자네를 이해하게끔 그것을 쓰게.

**DE MODO(MANERA, FORMA) QUE**

1) + 접속법: ‘ -하기 위하여’(목적)

Voy a llamar a Teresa de modo que me cuente lo ocurrido.

일어난 일을 내게 얘기하도록 떼레사를 부르겠다.

Mándale una nota de modo que no se le olvide nuestra cita.

그가 약속을 잊지 않게끔 쪽지를 보내라.

2) + 직설법: ‘ -하기에’(이유)

Llovía a cántaros, de modo que tuvimos que refugiarnos a toda prisa.

비가 억수같이 와서 우리는 서둘러 피해야 했다.

<조건의 접속사>

\* 조건의 접속사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할 때 쓰이므로 접속법 문장을 이끈다.

**EN CASO DE QUE : "-한다면"**

Se pondrán a trabajar en caso de que necesiten dinero.

그들은 돈이 필요하면 일을 시작할 거야.

**CON TAL(DE) QUE / A CONDICIÓN DE QUE / CON SÓLO QUE : "-하는 조건으로"**

Te daré un dulce con tal que no llores. 네가 안 울면 사탕 하나 주지.

Te lo diré a condición de que no lo cuentes a nadie.

네가 아무에게도 얘기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걸 말해 주마.

Con sólo que falte él, ya no podemos representar la función.

그가 빠지기만 해도 이미 우리는 공연을 할 수가 없게 된다.

**A MENOS QUE / A NO SER QUE : "-하지 않는다면"**

No iré a menos que tú quieras.

네가 원하지 않는 한 나는 가지 않겠다.

Vendré esta tarde a no ser que ocurra algo inesperado.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오늘 오후에 오겠습니다.

**SINO QUE : "-함이 없이"**

Sal discretamente sin que nadie te vea.

아무도 널 보지 않게 살그머니 나와라.

Los niños no pueden estar juntos sin que se peleen.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은 같이 있지를 못한다.

<si 조건절>

**1. SI**   
  
  
1) "Si + 직설법 과거": 과거 일어난 사실에 대한 조건   
  
Si iba el primero, entonces era Carlos. 일등이 지나갔다 하면 그건 까를로스였다.   
  
Si le llamé, fue porque no tenía noticias suyas. 그에게 전화한 것은 그의 소식을 몰랐기 때문이야.   
  
  
2) "Si + 직설법 현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가정   
  
Si no llueve, iré a la playa. 비가 안 오면 나는 바닷가에 가겠다.   
  
Si ha salido el tren, iré por avión. 기차가 떠났으면 나는 비행기로 가겠다.   
  
  
3) "Si + 접속법 불완료과거": 현실성이 없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   
  
Si me tocara la lotería, viajaría por el mundo.   
  
만약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세계 일주를 할텐데.   
  
Si tuviera dinero, te lo daría. 돈이 있다면 네게 줄텐데.   
  
  
4) "Si + 접속법 과거완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   
  
Si hubieras llegado antes, lo habrías visto.   
  
만약 네가 그 전에 왔더라면 그것을 보았을 것이다.   
  
Si hubiera tenido dinero, te lo habría dado. 돈이 있었더라면 네게 주었을 것이다.   
  
  
5) 혼합가정법   
  
Si mamá hubiera puesto la calefacción anoche, ahora no estaríamos resfriado.   
  
만약 어머니가 어제 밤에 난방을 켰더라면 지금 우리는 감기에 안 걸려 있을 것이다.   
  
  
**2. De + 동사원형**   
  
De tomar café en la noche, no me puedo dormir después.   
  
밤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잘 수가 없다.   
  
De no haber tomado café anoche, me habría dormido pronto.   
  
어제 밤에 커피를 마시지 않았더라면, 금방 잠들었을 것이다.   
  
  
**3. 조건절이 생략된 가정법 과거**   
  
Yo no me habría ido sin pagar.   
  
나라면 값을 안 치르고 가지 않았을 텐데.   
  
  
**4. COMO SI**   
  
영어의 as if에 해당하는 것으로 ‘마치 -인 것처럼’으로 해석이 된다.   
  
1. [como si + 접속법 불완료과거]의 경우 주절의 시제와 같은 상황을 가정  
Habla como si fuera una niña. 마치 여자애처럼 말한다.   
Habló como si fuera una niña. 마치 여자애처럼 말했다.   
Hablaba como si fuera una niña. 마치 여자애처럼 말하곤 했었다   
  
2.[como si + 접속법과거완료]의 경우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상황을 가정   
Habla como si hubiera sido profesor. 마치 (전에) 교수였던 것처럼 말한다.   
Habló como si hubiera sido profesor. 마치 교수였던 것처럼 말했다.   
Hablaba como si hubiera sido profesor. 마치 교수였던 것처럼 말하곤했다.

**김경희** () 10/30[13:03]   
Si tus dineros se van, tus amigos tambien. 재산을 잃으면 친구도 잃는다.

<명사절에서의 접속법>

1.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고 주절의 동사가 원망, 희망, 기대, 요구, 강요, 사역, 권고, 주의, 제안, 허용, 승인, 방임, 명령, 금지, 저지, 회의, 부정, 불확실, 및 감정의 뜻을 가진 아래와 같은 동사일 때 que 이하의 종속절에 사용된다.  
     
   querer 원하다, desear 원하다, preferir -을 더 좋아하다, pedir 요구하다, encargar 부탁하다, esperar 희망하다, pretender 바라다, rogar 간청하다, solicitar 간청하다, suplicar 간청하다, exigir 요구하다, necesitar 필요로 하다, aconsejar 충고하다, hacer -하게 하다, proponer 제안하다, advertir 경고하다, aprobar 승인하다, permitir 허용하다, dejar 시키다, consentir 동의하다, mandar 명령하다, decir -하도록 말하다, oponer 반대하다, ordenar 명령하다, impedir 저지하다, prohibir 금지하다, sentir 유감스러워하다, alegrarse de -을 기뻐하다, lamentar 한탄하다, ser lamentable 한탄하다, temer 두려워하다, tener miedo de -을 무서워 하다, ser una lástima 유감스러워하다, sospechar 의심하다, dudar 의심하다, extrañar 이상하게 여기다, negar 부정하다, suponer 가정하다, presumir 추측하다, no creer 믿지 않다, no estar seguro de -을 확신하지 못하다,  
     
   2. 당위성, 필요성, 중요성 등을 나타내는 아래와 같은 "ser + 형용사 + que + 접속법" 구문에 사용된다.  
     
   puede (que) -할지도 모른다, ser posible -할 가능성이 있다, ser probable -하기가 쉽다, ser imposible -할 가능성이 없다, ser necesario -할 필요가 있다, ser importante -하는 것이 중요하다, ser bastante 충분하다, bastar 충분하다, ser suficiente 충분하다, ser bueno 좋다, convenir 합당하다, imponerse 강요하다, ser conveniente 합당하다, ser mejor -하는 것이 더 좋다, ser fácil -하는 것이 쉽다, ser difícil -하는 것이 어렵다, ser preciso -한遁 것이 필요하다, hacer falta -할 필요가 있다.  
     
     
   3. 부정형과 명령형에서 접속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1) decir  
     
   Dice que lee [está leyendo/ ha leído/ leerá/ leyó/ leía] el libro.  
   Dijo que leía [estaba leyendo/ leería/ había leído] el libro.  
   Yo no digo que nuestros productos sean los mejores del mundo, pero sí digo que son los mejores del país.  
   Dile/ Dígale a Juan que no se vaya.  
   Papá dice que no te vayas.  
   Papá dijo que no te fueras.  
     
   2) creer  
     
   Creo que viene/ vendrá/ ha venido/ vino.  
   Creía [creí] que venía/ vendría/ había venido.  
   No creo que venga/ haya venido/ viniera.  
   No creía [creí] que viniera/ hubiera venido.  
     
   3) Es cierto  
     
   Es cierto que él es honrado.  
   No es cierto que sea honrado.  
     
     
   4. 명령, 충고, 허용, 금지 동사일 경우에는 목적격으로 동사원형을 선호한다.  
     
   1) permitir  
     
   Mi papá no me permite que salga por la noche.  
   Mi papá no me permite salir por la noche.  
     
   2) ordenar  
     
   El jefe me ordena que llegue a tiempo a la oficina.  
   El jefe me ordena llegar a tiempo a la oficina.  
     
     
   moaikim () 11/20[21:38]  
   Voz del pueblo, voz del cielo. 민심은 천심

<관계사>

1. 관계사란: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문법소의 일종  
     
     
   1) 관계대명사: que, quien(-es), el(la/los/las) que, el(la/los/las) cual(es)  
     
   2) 관계형용사: cuyo, cuanto  
     
   3) 관계부사: donde, cuando, como, cuanto  
     
     
   2. QUE: 영어의 that에 해당  
     
     
   1) 전치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람과 사물에 다 통용되며 주격, 목적격으로 두루 사용  
     
     
   a. El abogado que vino ayer a mi despacho era argentino.  
     
   어제 내 사무실에 온 변호사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었다.  
     
   - Un abogado vino ayer a mi despacho.  
     
   - El abogado era argentino.  
     
   b. Éstos son los libros que yo busco. 이것들이 내가 찾는 책들이다.  
     
   - Estos son libros.  
     
   - Yo busco los libros.  
     
     
   2) 전치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물에 국한시켜 사용하고 사람일 경우에는 quien이나 정관사를 수반한 형태인 el que, la que, los que, las que 등의 형태를 쓴다.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이유는 종속절에서 관계대명사로 대치되는 요소가 전치사의 목적격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어에서는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격이 관계대명사로 대치될 경우 반드시 해당 전치사가 그 관계대명사 앞에 쓰인다.  
     
     
   a. La escuela en que estudiamos tiene diez mil alumnos.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는 만 명의 학생들이 다닌다.  
     
   - Estudiamos en una escuela.  
     
   - La escuela tiene diez mil alumnos.  
     
   b. El país a que me refiero es España.  
     
   내가 언급하는 나라는 스페인이다.  
     
   - Me refiero a un país.  
     
   - El país es España.  
     
     
   3. QUIEN: 영어의 who에 해당. 사람만을 지칭하며 선행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두루 쓰인다.  
     
     
   a. Voy a visitar a mi amigo, quien está ahora en el hospital.  
     
   나는 친구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는 지금 병원에 있다.  
     
   b. El amigo a quien voy a visitar está ahora en el hospital.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친구는 지금 병원에 있다.  
     
   - Voy a visitar a mi amigo. 나는 친구를 방문할 것이다.  
     
   - Mi amigo está ahora en el hospital. 내 친구는 지금 병원에 있다.  
     
   c. Quien habla mucho, sabe poco.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적다.  
     
   d. Quien da algo, por algo da. 무언가는 주는 경우에는 속셈이 있다.  
     
   e. Quien supo esperar llega a triunfar.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4. EL(LA/LOS/LAS) QUE  
     
     
   1) que앞에 정관사를 전치시킴으로써 대치되는 명사의 성과 수를 표시한다. 이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과 사물에 다 통용되고 주격,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두루 쓰인다.  
     
     
   a. Mi tío me contó unas anecdotas de Simón Bolívar, las que me dievertieron mucho. 삼촌이 시몬 볼리바르의 일화에 대해서 내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는 아주 재미있어 했다.  
     
   b. ¿Quién es esa María Teresa de la que todos hablan mucho?  
     
   모두가 이야기하는 마리아 떼레사라가 누구지?  
     
     
   2) 선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문맥상 사람을 지칭하게 된다. 선행사 없이 사람을 지칭하는 quien과는 뉘앙스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quien 좀 더 일반적인 문맥에서 사용되고 el(la/los/las)que는 더 구체적인 문맥에서 사용된다.  
     
     
   a. Los que no quieren oírme, pueden faltar a la clase.  
     
   내 말을 듣기 싫은 사람들은 수업에 오지 않아도 된다.  
     
   b. Yo soy el que quiere ir a México.  
     
   내가 바로 멕시코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다.  
     
     
   5. EL(LA, LOS, LAS) CUAL(-ES)  
     
     
   관계대명사 el(la/los/las)cual(es)는 선행사를 취하는 경우 el(la/los/las)que와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쓰이지만 후자와는 달리 선행사가 없이 독립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과 사물에 다 통용되고 주격,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두루 쓰인다.  
     
     
   a. Mi tío me contó unas anecdotas de Simón Bolívar, las cuales me dievertieron mucho.  
     
   b. ¿Quién es esa María Teresa de la cual todos hablan mucho?  
     
   c. Mañana llega aquí Teresa y Luisa, las cuales quieren estudiar con nosotros.  
     
   내일 여기에 떼레사와 루이사가 도착하는데 그녀들은 우리랑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한다.  
     
   d. Él necesita las gafas, sin las cuales no ve nada.  
     
   그는 안경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는 아무 것도 볼 수 없다.  
     
     
     
     
   6. LO QUE / LO CUAL  
     
     
   중성관사를 포함한 이 관계사들은 선행사로 앞 문장 전체 혹은 일부분을 취할 경우에만 쓰인다.  
     
     
   a. Mis alumnos llegan a la clase a tiempo, lo que (lo cual) me agrada siempre.  
     
   내 학생들은 정시에 수업에 도착하는데 그 사실에 항상 나를 흡족하게 한다.  
     
   b. Salieron de casa sin paraguas, lo que (lo cual) fue imprudente.  
     
   그들은 우산이 없이 외출을 했는데 그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  
     
     
   ※ 사물 선행사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에는 que 와 el(los/la/las) queel, el(los/la/las) cual(es) 등의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치사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que를 사용한다.  
     
     
   a. La función que empieza a las seis es para los niños.  
     
   6시에 시작하는 공연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다.  
     
   b. La lección que estudiamos hoy es muy difícil. 오늘 공부하는 과는 아주 어렵다.  
     
   c. La pluma con que escribo es azul. 내가 가지고 쓰는 펜은 푸른색이다.  
     
   = La pluma con la que escribo es azul. = La pluma con la cual escribo es azul.  
     
     
   d. Quiero comprar algo con que pueda escribir. 나는 가지고 쓸 무언가를 사고 싶다.  
     
   ≠ Quiero comprar algo con el que pueda escribir.(X) ≠ Quiero comprar algo con el cual pueda escribir.(X)  
     
     
   e. 전치사 por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맥상 의미의 모호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관사가 없는 관계대명사 형태인 por que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Es el motivo por el caul estás preocupado? 그게 네가 걱정하고 있는 동기니? ≠ ¿Es el motivo por que estás preocupado? (X) ≠ ¿Es el motivo por el que est's preocupado? (?)  
     
     
     
   7. CUYO(-OS/-A/-AS)  
     
     
   소유의 의미를 띠므로 de quien, del que, del cual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식을 받는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시킨다.  
     
     
   a. Son políticos cuya historia es poco clara. 그들은 전적이 분명치 않은 정치가 들이다.  
     
   b. Esta es la casa en cuyo jardín hay muchos árboles.  
     
   이것이 나무가 많은 정원을 가진 집이다.  
     
     
   8. CUANTO(-OS/-A/-AS)  
     
     
   ‘모든 -가(-를)’에 해당하는 관계형용사로 뒤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를 시킨다. 이 경우의 의미상 todo el(loos/la/las) que로 바꾸어 쓸 수도 있다.  
     
     
   a. El me dio cuanto dinero tenía. 그는 가진 돈을 전부 내게 주었다.  
     
   = El me dio todo el dinero que tenía.  
     
   b. Mi amiga me prestó cuantas novelas tenía.  
     
   내 여자 친구는 가지고 있던 모든 소설들을 내게 빌려주었다.  
     
   c. Tanto vale cuanto trabaja. 일을 많이 한만큼 그렇게 많이 가치롭다.  
     
     
   9. DONDE  
     
     
   영어의 장소의 관계부사 where에 해당하며 전치사를 수반한 관계대명사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a. Allí está la casa donde vive el presidente. 그곳에 대통령이 사는 집이 있다.  
     
   = Allí está la casa en la que vive el presidente.  
     
   b. La casa a donde voy es muy hermosa. 내가 가려고 하는 집은 아주 아름답다.  
     
   = La casa a la que voy es muy hermosa.  
     
     
   10. CUANDO  
     
     
   영어의 시간의 관계부사 when에 해당한다.  
     
     
   a. El sábado es cuando más gente viene. 토요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날이다.  
     
   b. Fue el año de 1987 cuando entré en la universidad.  
     
   내가 대학에 들어간 것은1987년도였다.  
     
     
   11. COMO  
     
     
   영어의 방법의 관계부사 how에 해당한다.  
     
     
   Ya sabes la manera como me salí de ese apuro.  
     
   그 곤경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왔는가를 네가 이미 안다.

<형용사절에서의 직설법과 접속법>

선행사가 경험된 대상일 때 -> 직설법  
경험되지 않은 대상일 때 -> 접속법  
  
  
1. que  
  
¿Quién es el joven que vino a verte? Es mi amigo Pérez.  
  
너를 만나러 온 그 젊은이는 누구냐? 내 친구 뻬레스야.  
  
¿Sabes cuándo salió el barco que viste? Sí, salió esta mañana.  
  
네가 본 그 배가 언제 떠났는지 아니? 응, 오늘 아침에 떠났어.  
  
Busco un abogado que hable coreano. 한국말을 하는 변호사를 한 사람 찾고 있다.  
  
Cuéntanos cosas que hayas visto en el circo. 내가 서커스에서 본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다오.  
  
  
2. al(la, los, las) que, al (la, los, las) cual(es), a quien(es), etc.  
  
¿Quién es el señor al que diste el paquete? 네가 그 상자를 드린 분은 누구시냐?  
  
Premiaremos al que gane. 이기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습니다.  
  
  
3. 전치사 + 정관사 + que, cual(es), quien(es)  
  
Visitaré la casa en la cual nació mi abuelo. 나는 할아버지가 태어난 집을 방문할 것이다.  
  
La chica con quien salgo es morena. 내가 데이트하는 여자는 가무잡잡하다.  
  
  
4. 선행사가 포함된 경우  
  
Quien vendió más es Mario. 가장 많이 판 사람은 마리오이다.  
  
Los que sabían la verdad ya se murieron.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  
  
  
5. lo que  
  
No comprendo lo que dices tú.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Me dijo que llegaba tarde, lo que [lo cual] me disgustó. 그는 내게 늦게 도착하리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나를 불쾌하게 했다.  
  
Haz lo que diga yo.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해라.  
  
Le daré a Vd. todo lo que necesite.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드리겠소.

<부사절에서의 직설법과 접속법>

¿Te sientas siempre aquí? Sí, aquí es donde me siento. 너는 항상 여기 앉니? 응, 여기가 내가 앉는 곳이야.   
  
¿Cuándo la operaron a Rosa? Fue anteayer cuando la operaron. 로사는 언제 수술했지? 그녀를 수술한 때는 그저께였어.   
  
Te diré la manera como me salvé.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방법을 네게 말해 주마.   
  
Hágalo como quiera.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요.   
  
Ayúdame cuando tengas tiempo. 너는 시간이 있을 때 날 도와 줘.

<독립절에서의 접속법>

Ojalá (que) me toque la lotería. 복권아, 당첨되어라!  
  
Ojalá tocara la lotería. 복권이 당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Qué gusto que ya estés bien! 네가 좋아진 것을 보니 참 기쁘다.  
  
¡Lástima que ya termine la primavera! 봄이 벌써 끝나니 유감이로구나.  
  
¡Qué lástima que no hayas podido venir! 네가 오질 못해 참 유감이다.  
  
¡Qué pena que estuvieras enfermo todavía! 네가 아직도 아프다면 참 안됐을 뻔 했다.  
  
Que descanse en paz. 편히 잠드소서.  
  
Quizás vayamos esta tarde a tu casa. 어쩌면 오후에 너의 집에 우리가 갈지도 모르겠다.